

숨이 가빠질수록 사람의 온기는 더 선명해졌다

원무부 임청산

2026년 5월, 김천의료원 우수직원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해 중국 청두의 관광명소와 화서병원을 다녀왔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사람’과 ‘의료’, 그리고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그곳의 공기와 풍경, 사람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처음 청두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 전체에 흐르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의 일상과 달리, 중국 사람들은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웃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모습이였다. 식당 직원도, 거리의 상인도, 관광지 안내원도 낯선 외국인인 우리에게 먼저 미소를 건넸다.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다. 여행 내내 느꼈던 중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특히, 화서병원 방문은 병원직원으로서 큰 울림을 주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답게 규모와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바쁘 와중에도 우리를 세심하게 안내해주었고,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려 노력했다. 질문을 하면 끝까지 경청한 뒤 웃으며 답해주는 모습에서 ‘환자 중심’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의료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의 최첨단 시설보다 더 배우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친절함과 배려였다. 의료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연수에서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은 단연 어메이산에서의 고산병 경험이다. 아름다운 산세와 웅장한 자연을 기대하며 올랐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숨이 차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으며,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걸음조차 쉽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데, 그 순간 문득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실히 느껴졌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함께한 동료들이 물을 건네고 상태를 살펴주며 서로를 챙겨주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같이 걸어주었다.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힘든 순간조차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돌아보면 이번 중국 연수는 단순히 선진병원을 견학한 일정이 아니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 자연 앞에서 느낀 겸손함,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고생했던 시간들이 내 마음속에 깊게 남았다. 특히 병원직원으로서 환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청두 연수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친절과 여유의 힘**’을 앞으로 김천의료원에서의 업무와 삶 속에서도 실천해 나가고 싶다.